

미용대회 헤어컬러 분석을 통한 색채배색 연구 O.M.C 헤어월드를 중심으로

황수민^{*+} · 김진숙^{**}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시간강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초빙교수^{**}

Coloration Trends through Analysis of Hair Colors from Hairdressing Competitions: Focusing on O.M.C Hair World

Soo-Min Hwang^{*+} · Jin-Sook Kim^{**}

Adjunct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Graduate School, Youngs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Youngsan University^{**}

투고일 : 2020.10.16 / 수정일 : 2020.12.09 / 게재일 : 2020.12.20

Abstract

In the early part of the 21st century, hairstyles have emerged as one of the most common means for people to express their beauty in modern society. As more consumers show an interest in hairstyling, the necessity for creative hairstyles has increased. Hairstyles have been scientifically analyzed and reviewed, and their artistic aspects and hairstyling skills have been considered more seriously. Under such circumstances, hairdressers receive inspiration from diverse missions seen at hairdressing competitions in terms of creative design and coloration. Among these hairdressing competitions, Organization Mondiale de la Coiffure (OMC) are the trendiest and most popular events. In these hairdressing contests, color is important and accounts for a great portion of the style, having a lot of influence on the hair design and images presented. Therefore, there have been diverse analyses on color to help hairstylists apply the color they want, its application to works during hairdressing competitions, and various other motives. This study analyzes colors used at hairdressing competitions by event and year and investigates the color arrangement applied to works from the contests. For this, the images of hairstyles from the O.M.C Hair World Championships from 2014, when Korean hairdressers started to win championships, to 2018 were analyzed.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s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analyzing coloration and hair collections, which could be used in hairstyling and many other fields as well as predicting future coloration trends.

Key Words: Hair World ChampionShip(미용대회), Hair Color(헤어컬러), Color(색채), Color Scheme(배색)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Soo-Min Hwang, +82-51-727-5824, E-mail: ips2454@naver.com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는 사회 전반적 문화 현상으로 사회적 인식과 변화, 환경에 의해 새로운 트렌드가 생성되고 있다¹⁾. 현대인들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와 심리적 변화로 패션과 네일, 헤어 등의 생활예술 분야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표현 영역을 선호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이미지 변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소로 남녀를 불문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헤어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꾸준한 애정으로 헤어 관련 종사자들은 대중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시대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자 갖춰야 할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²⁾. 그리고 헤어디자인과 트렌드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늘 새로운 욕구를³⁾ 충족시켜 줄 만한 창의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미용 아티스트들에게 창의적인 작품개발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를 부각하고 예술성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활동 중의 하나가 미용경기 대회이다. 헤어디자이너가 과학적으로 분석, 정리되어 예술성과 숙련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헤어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미용대회 과제들에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색상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받는다⁴⁾. 미용경기 대회 중 가장 트렌드에 앞장서며 활성화되어있는 대회인 O.M.C 헤어월드 챔피언십 대회(Organization Mondiale de la Coiffure, 이하

O.M.C)는 세계 미용대회(World Hair dressing Championship)라는 이름으로 헤어 아티스트들의 기술의 축제이다. 1947년 프랑스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세계 이·미용 경기 대회(Hair World Champion Ship)인 O.M.C 헤어월드는 미 전 세계 이·미용인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헤어 트렌드 발표로 기술향상은 물론 세계인들과의 만남과 더불어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되어왔다⁵⁾. 최근에는 여러 민간단체나 학교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미용 대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용인들의 활동과 트렌드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⁶⁾.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할 때 색채가 시각적으로 전달력이 크기 때문에 각 분야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요소 중 색채에 중요도를 두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오늘날 이미지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생활예술 분야에서 조형성뿐만 아니라 색채를 통해 예술적 감성을 느끼며 심리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색채는 심리적,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으로 조형성과 함께 예술적 감성을 원하며 매년 트렌드와 변화를 추구한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앞서 기존 작품의 디자인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작품을 테크닉으로 분석하거나, 스타일링으로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⁷⁾.

미용 작품에서도 모발의 흐름과 여러 컬러의 배색으로 작품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듯이 작품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컬러의 색채배열과 색상조화가 중요하다⁸⁾. 이와 관련하여 미용대회 작품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숙자⁹⁾는 대회 종목 중 하나인 크리에이티브 종목에 대한 디자인 및 색상 트렌드를 분석 연구 하였고, 김신아¹⁰⁾는 O.M.C 헤어월드 대회의 작품을 종목별로 분석·연구하였고 색의 형태를 응용한 테크니컬·패션종목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색채를 연구한 패션·미용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황금빛누리¹¹⁾는 노란색 배색을 활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연구하였고, 윤선애¹²⁾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채와 배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유행을 선도하며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색채연구를 패션·미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색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론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용대회 작품과 다양한 모티브의 형태를 응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O.M.C 헤어월드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O.M.C 헤어월드 대회에서 나타난 작품의 이미지를 조사하고 분석 연구하여 헤어 작품과 살롱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색채배색의 기법분석과 헤어 컬렉션 분석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컬러 배색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기반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1. O.M.C 헤어월드

1.1 O.M.C 헤어월드 배경

세계 이·미용 경기 대회(Hair World Champion Ship), 즉, 이·미용 올림픽이라고도 칭하는 O.M.C 헤어월드는 1947년 프랑스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이·미용 경기 대회이다. 이 대회는 2016년도 대한민국 서울 헤어월드 이후 아시아 컵, 유럽 컵, 아메리카 컵 등 각 대륙 간 월드컵이 사라지고 1년마다 개최가 되어 더욱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게 된다¹³⁾. O·M·C 헤어월드 대회는 세계 이 미용 협회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국, 태국,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등 60여개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용인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새로운 기술과 테크닉을 선보이는 장소로 각광받으며 세계의 헤어스타일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제 27회 헤어월드를 개최하고 2016년 키텍스에서 제 36회 헤어월드를 개최하면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헤어월드를 2번이나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다. 2014년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헤어월드 한국이 여성부문(테크니컬카테고리, 패션카테고리 두 개의 부문)우승을 차지해서 세계 최초로 두 개의 부문에서 종합 챔피언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6한국 키텍스에서 개최된 헤어월드 대회에서 한국이 여성부문 4관왕(시니어-테크니컬, 시니어-패션, 시

니어-모델, 주니어-테크니컬)을 차지하며 O.M.C 헤어월드 여성 헤어부문 챔피언을 전부 석권하였다.

헤어월드는 크게 팀 종목과 개인종목으로 나뉜다. 그 후 여성과 남성부문으로 나뉘고, 연령에 따라 시니어와 주니어로 나뉜다. 만 24세 이상은 시니어(Senior), 만 24세 이하는 주니어(Junior)로 규정된다. 경기 종목은 매 대회마다 명칭과 구성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선수 개인의 순위를 O·M·C Individual World Champions 라고 하며, 각 국의 팀 순위를 O.M.C Team World Champions라고 한다. 팀 순위는 각 국가 선수들의 개인점수를 총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국가가 우승을 하게 된다.

1.2 O.M.C 헤어월드 경기종목

O.M.C 헤어월드 개인 종목은 여성과 남성 부문으로 나뉜다. 여성 종목은 테크니컬 부문의 고도의 드라이 기술이 요구되어지며 디자이너의 섬세한 감성이 필요한 작품으로 평가방법은 커트의 정확성과 연관성을 평가하며 컬러의 선명도를 보고 그라데이션의 효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종목이 있다.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종목은 크리에이티브와 업스타일의 종목을 혼합한 종목으로 저녁 파티에 어울릴만한 화려한 헤어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작품으로 크리에이티브에 장식이나 헤어피스를 더해 연출한다. 패션부문의 제 1종목인 데이스타일(Day Style) 긴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진 상태로 하며, 스타일은 루즈하고 다운된 스타일이어야 한다.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

은 헤어월드의 패션 부문에서 제 2종목으로 머리를 올려 묶어서 연출하는 스타일로서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품위있게 표현해야 하는 종목이다. 판타지한 스타일과 과한 예술성이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금지한다. 패션컷(Fashion Cut)은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젊은 여성들의 개성과 독창성, 유행성 등을 접목한 패서너블한 스타일이다.

남성 부문의 종목으로는 남성의 각진 남성성을 표현해야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클래식(Classic), 컬러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분위기의 스타일로 진보적이고 율동감 있는 머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프로그래시브(Progressive), 여성 부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드라이 기술이 요구되어지며 남성종목의 특징인 남성미를 표현할 수 있는 사각형의 아웃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남성미가 부각되는 사각형의 머리형태 안에서 C, S의 흐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남성 크리에이티브(Creative Gents)등의 종목들이 있다¹⁴⁾. 여성과 남성 부문 모두 마네킹 부문과 Live Model부문이 있고 Master Stylist라는 60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종목도 있다. 개인경기 종목은 주체국의 사정에 따라 종목이 바뀔 수 있다.

2. 색채조화와 배색 기법

2.1. 색채의 개념

현재 색과 색채는 거의 비슷한 개념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히 구분한다면 색채란 색이 무너로 형상화되거나 아름답게 곱게 색이

칠해진 것을 말하며 색을 무너화해서 배색해 놓은 것을 말한다. 색에서 발견되지 않는 감성적인 느낌과 색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을 서술할 때 색채가 사용된다. 색을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지각현상으로 본다면 색채는 물리적인 현상과 더불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 감각을 말한다. 즉 빛에 의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 색 지각과 함께 상징성, 거리감, 질감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각현상을 말한다¹⁵⁾. 색채를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색은 빛이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망막에 도착한 후에 시각 세포를 자극하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색채의 감각 과정은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장파색상은 연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단파 색 반응의 수축에 의해 야기된다. 색채 감각은 시각 생리 기능으로 인한 심리적인 현상이며 인간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¹⁶⁾.

2.2 색채조화

색채조화(Color Harmony)는 두 가지 이상의 색들 사이에서 통일성과 변화의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상태를 말한다. 색채 조화는 색의 배합을 말하며, 배색의 아름다움은 질서성과 복잡성의 상관관계에 의한 것으로 색체계에 의한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를 다루는 것이다¹⁷⁾. 색채의 세계는 형태, 위치, 면적비, 색면의 재질감, 빛의 각도와 반사, 그리고 개인의 심리 상태나 취미 등 많은 조건이 복잡하게 관련, 교차하면서 반응을 나타내므로 배색하더라도 모두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¹⁸⁾. 색채 조화는 배색의 결과물에 대한 활용과 평가에 대해 정의된다. 배색의 평가는 유쾌함/불쾌함, 좋아함/싫어함 등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심미적 평가와 함께 합리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색채 심리 이론에서 출발한 단색들이 여러 색으로 조합되었을 때 또는 각각의 면적별로 분할되고 실제로 시공되었을 때 그 평가는 계속된다.

2.3 배색 기법

일반적으로 배색(Color Scheme)이란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개의 색채를 의식적으로 짜맞추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의 조화를 통해 색이 사용되는 목적성을 극대화해 인간의 시지각에 심미적 판단을 이끌어 낸다. 우리가 흔히 색채를 평가할 때 아름다운 색, 추한 색 등으로 표현하는데, 개개의 색채에는 고유성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색 자체의 독자성에 따라 지각되는 것보다 인접한 색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배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3속성에 의해 조화되나 주로 색상에 중점을 두고 조화를 고려한다. 색채가 효과적인지 그렇지 못한지는 배색으로 결정되며, 심미적인 효과에 따라 아름다움이 표현된다¹⁹⁾. 배색이 제품, 건축, 그래픽, 패션 디자인 등에서 배색이 중요시 되는 이유이다.

배색기법의 형식 중 대표적인 배색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톤온톤(Tone on Tone)과 톤인톤(Tone in Tone)이다²⁰⁾. 톤온톤(Tone

on Tone)은 ‘톤을 겹치게 한다’는 의미로 동일 색상으로 두 가지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잡은 배색이다. 톤인톤(Tone in Tone)은 비슷한 톤의 조합에 따른 배색기법이며, 색상은 톤온톤(Tone on Tone)과 마찬가지로 동일 색상을 원칙으로 하여 인접 또는 유사 색상의 범위 내에서 톤에 차이를 두어 배색한다.

연속변화효과에 의한 배색을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이라 하는데 세 가지 색 이상의 다색 배색에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을 뜻한다.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은 ‘서서히 변하는 것’, ‘단계적인 변화’라는 의미이다. 색채의 연속적인 배열에 의해 시각적인 유동성을 주고 점진적인 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분리배색(Separation)은 두 가지 색 또는 많은 색의 배색은 그 관계가 애매하거나 대비가 너무 강한 경우에 접합된 색과 색 사이에 분리색 한 가지를 삽입함으로써 조화시키는 기법이다. 분리색으로는 주로 흰색, 검정, 회색의 무채색을 사용하고 저채도의 색 또는 금색, 은색 등의 메탈릭한 색을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다. 스테인드 글라스, 애니메이션 등에서 흔히 사용된다.

강조효과에 의한 배색은 강조배색(Accent)배색이라 하며 ‘강조하다, 돋보이게 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눈에 띄게 하다’ 등의 의미이다. 강조색은 주조색과 대조적인 색상이나 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주목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²¹⁾.

반복 효과에 의한 배색은 반복배색(Repetition)이라 하며 이 기법은 두 가지 색 이상을 사용하여 통일감이 배제된 배색으로 일정한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조화를 주는 방법이다. 두 색의 배

색을 하나의 유닛 단위로 하여 그것을 되풀이하며 조화의 효과를 내는 배색기법이다. 반복 배색 기법은 타일의 배색이나 체크무늬의 배색 등에서 흔히 사용된다²²⁾.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O.M.C 헤어월드에서 사용된 색채와 색상배열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참가하여 우승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O.M.C 헤어월드 작품의 이미지를 인터넷 자료검색,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자료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의 범위로 모발의 명도가 백모에 가까운 레벨이 높은 마네킹으로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 색채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고 사료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 헤어 바이나이트(Hair By Night), 데이 스타일(Day Style),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 패션컷(Fashion Cut)의 5가지 종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연구 방법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O.M.C 헤어월드 작품의 이미지를 조사·수집한 뒤 5가지의 종목의 상위 5위까지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들을 헤어 마네킹 이미지에서 얼굴과 배경은 제거하고 헤어 이미지만 보이도록 자른 후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 프로그램(KSCA: Korean Standard Color Analysis)를 사용하여 픽셀 처리하여 모자이크화 하였고 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품에 활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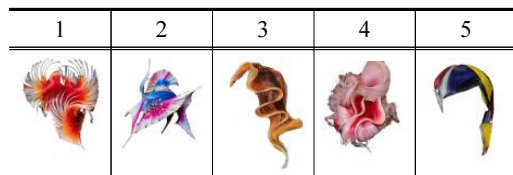
색채를 추출한 후 Color Palette를 구성하여 년도별활용된 색상 분석, 종목별 색상 분석, 작품별 색채의 배색기법 분석으로 분류하여 사용된 컬러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그 후 색채 분석 및 배색기법 분석, 년도별 활용된 색채 분석결과를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평가를 하고 결과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헤어디자인 관련 전문가, 헤어디자인 뷰티학과 교수 등으로 헤어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분류기준 별 작품이미지와 Color Palette를 첨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색채 조화와 배색 기법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O.M.C 헤어월드 작품에서 나타난 색채와 사용된 배색기법을 기반으로 색채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이미지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컬러를 유용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Table 1>, <Table 2>, <Table 3>과 같다. 분류한 색상으로는 가발의 기본색인 흰색(White)은 분석색상에서 제외하였고, 멘셀 표색계의 기본 색상인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과 무채색을 분류하기 위해 GY(Gray Scale)의 11가지 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Source Image For Color Analysis



<Table 2> Source Image For Color Analysis-Exclude Background Image



<Table 3> Mosaic Hair Image For Colo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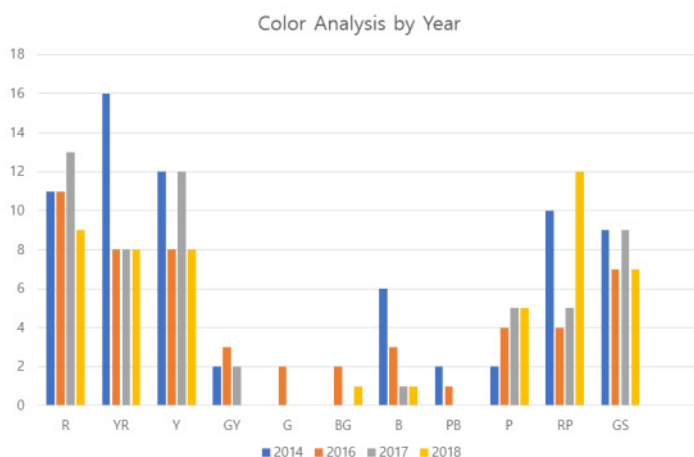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O.M.C 헤어월드 작품의 년도별 색상 분석

O.M.C 헤어월드 작품 중 여성종목 5가지의 상위 5위의 작품 100가지를 년도별로 각 25개로 분류하였다. 2014, 2016, 2017, 2018년도로 나누어 분류 조사하고 종목별 작품들에 나타난 색상을 분석하여 해당 년도에 사용된 트렌드 컬러들의 조화를 알아보았다. 년도별 작품에 나타난 색상은 <Table 4>, <Fig. 1>에서 볼 수 있다. 분석하기 위해 2014년 독일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에 나타난 색을 멘셀 표색계의 기본 색상

〈Table 4〉 Color Analysis by Year

	2014	2016	2017	2018	Total
R	11	11	13	9	44
YR	16	8	8	8	40
Y	12	8	12	8	40
GY	2	3	2	0	7
G	0	2	0	0	2
BG	0	2	0	1	3
B	6	3	1	1	5
PB	2	1	0	0	3
P	2	4	5	5	16
RP	10	4	5	12	31
GS	9	7	0	7	23



〈Fig. 1〉 Color Analysis by Year

인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과 무채색을 분류하기 위해 GY(Gray Scale)의 11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와 <Fig. 1>를 보면 2014년 독일 O.M.C 헤어월드 에서는 주황(YR)이 1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노랑(Y)이 12회로 주황과 노랑의 그라데이션된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초록(G)와 청록(BG)의 녹색계통의 색상을 사용이 되지 않았으며 자주(PB)가 10회, 무채색중 검정과 회색이 9회로 사용되었다.

2016년 한국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에 나타난 색을 분류하여 사용된 색상을 분석하여보면 2014년도와는 달리 빨강(R)가 1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주황(YR)과 노랑(Y)이 각 8회, 연두(GY)와 초록(G)이 각 2회 사용되었다. 그리

고 보라(P)와 자주(RP)이 각 4회로 P에서 RP로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색상이 나타났다.

2017년 파리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에 나타난 색으로는 2016년 한국 헤어월드와 같이 빨강(R)이 1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노랑(Y)이 13회, 세 번째로는 무채색(Gray Scale)이 사용되었다. 이전까지는 검정, 회색의 단독 사용이었다면 2017년도에서는 무채색의 사용으로도 검정에서 회색으로의 그라데이션이 나타났다.

2018년 파리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에서 사용된 색상을 분석하여보면 <Fig. 1>에서 나타내듯이 자주(RP)의 사용이 12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RP의 사용도 짙은 자주, 옅은 자주 등으로 조절하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강(R)이 9회, 주황(YR), 노랑(Y)이 각 8회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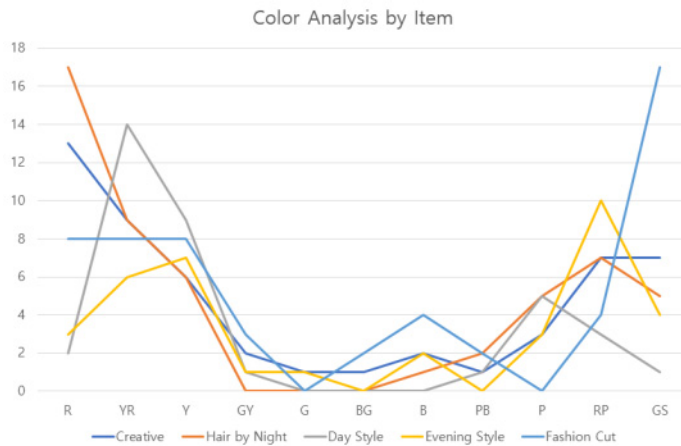
2. O.M.C 헤어월드 종목별 색채 분석

2014~2018년도의 O.M.C 헤어월드의 여성 종목 5가지의 각 상위 5위의 작품 100가지를 여성부문 대회 종목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 데이 스타일(Day Style),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 패션 커트(Fashion Cut)의 5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분류 조사하고 종목별 작품들에 나타난 색상을 분석하여 해당 년도에 많이 사용된 트렌드 컬러를 알아보고자 한다. 종목별 작품에 나타난 색상은 <Table 5>, <Fig. 2>에서 볼 수 있다. 종목별로 나타난 색을 먼셀 표색계의 기본 색상인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과 무채색을 분류하기 위해 GY(Gray Scale)의 11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 종목에서는 빨강(R)이 13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주황(YR)이 9회, 노랑(Y)이 6회, 자주(RP)이 7회로

<Table 5> Color Analysis by Item

	Creative	Hair by Night	Day Style	Evening Style	Fashion Cut	Total
R	13	17	2	3	8	43
YR	9	9	14	6	8	46
Y	6	6	9	7	8	36
GY	2	0	1	1	3	7
G	1	0	0	1	0	2
BG	1	0	0	0	2	3
B	2	1	0	2	4	9
PB	1	2	1	0	2	6
P	3	5	5	3	0	16
RP	7	7	3	10	4	31
GS	7	5	1	4	17	34



〈Fig. 2〉 Color Analysis by Item

난색이 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 종목에서는 빨강(R)이 17회로 빨강으로 채도와 톤의 변화를 주어 나타내는 컬러가 많이 나타났고, 연두(GY), 초록(G), 청록(BG)의 한색계열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주황(YR)의 사용이 14회로 늘어났으며 빨강(R)은 2회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낮았다. 초록(G), 청록(BG), 파랑(B)의 한색계열의 색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무채색(GS)도 1회만 사용되었다.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에서는 자주(RP)의 사용이 10회로 주를 이루었고 자주컬러의 채도, 명도, 톤에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노랑(Y)의 7회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며 청록(BG)와 남색(PB)의 짙은 색은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패션컷(Fashion Cut)에서는 무채색(Gray Scale)이 17회 사용되었고 그 중 검정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마네킹의 기본 모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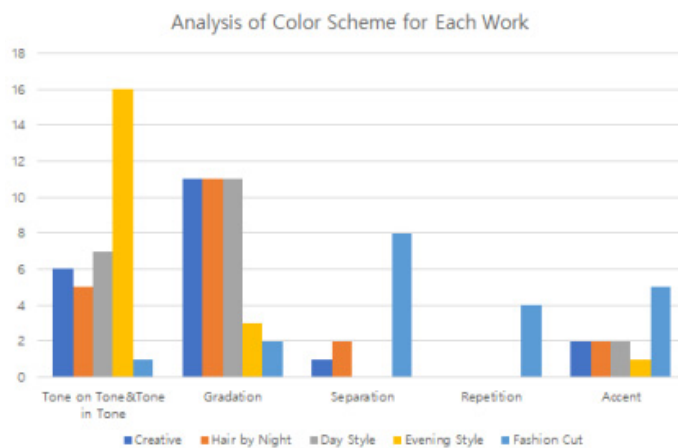
의 색인 흰색과 대비효과를 주기 위해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빨강(R), 주황(YR), 노랑(Y)의 색이 각 8회씩으로 강조색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O.M.C 헤어월드 작품별 색채의 배색기법 분석

<Table 6>, <Fig.3>는 2014, 2016, 2017, 2018 년도의 O.M.C 헤어월드 경기 작품에 나타난 색채의 배열을 앞에서 분석한 Color Palette를 활용하여 배색기법 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그래프이다. 이 때, 톤온톤(Tone on Tone)과 톤인톤(Tone in Tone)배색은 톤에 관한 배색기법이므로 하나로 묶어 톤온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으로 명시한다. 배색기법은 톤온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 분리배색(Separation), 반복배색(Repetition), 강조배색(Accent)의 5가지의 배색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종목별 작품에

〈Table 6〉 Analysis of Color Scheme for Each Work

	Tone on Tone& Tone in Tone	Gradation	Separation	Repetition	Accent	Total
Creative	6	11	1	0	2	20
Hair by Night	5	11	2	0	2	20
Day Style	7	11	0	0	2	20
Evening Style	16	3	0	0	1	20
Fashion Cut	1	2	8	4	5	20
Total	35	38	11	4	12	100



〈Fig. 3〉 Analysis of Color Scheme for Each Work

사용된 색채배열의 배색 기법은 <Table 6>, <Fig. 3>와 같다. 톤온톤(Tone On Tone)은 동일한 컬러 안에서 톤에 차이를 두는 배색을 말한다. 톤인톤(Tone In Tone)은 같거나 유사한 톤 내에서 색상에 차이를 두어 배색하는 기법이다. 톤의 명도와 색상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기법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톤온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배색이 나타난 작품은 총 35작품이 있었다.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이 16작품으로 가장 많았고 패션컷(Fashion Cut)은 1작품, 데이 스타일(Day Style)은 7작품으로 나타났으며 크리에이티브(Creative)는 6작

품,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는 5작품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컬러와 우아한 형태디자인을 표현해야 하는 패션 카테고리의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과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 톤온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배색기법을 많이 활용하였다.

연속된 세 가지 색 이상의 다색 배색이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을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이라 한다. 색채의 연속적인 배열에 의해 시각적인 유동성을 주고 점진적인 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

이 나타난 작품은 총 38작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배색이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 헤어바 이나이트(Hair by night),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 나타난 작품이 각 11작품 씩 총 33작품이 나타났고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에서는 3작품, 패션컷(Fashion Cut)은 2작품이 나타났다.

분리배색(Separation)은 색 과 색의 사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두 색 사이에 분리색을 삽입하면 중화시켜주는 배색이다. 분리색으로는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며, 분리배색(Separation)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종목은 패션컷(Fashion Cut)로 8작품이 나타났다. 헤어바 이나이트(Hair by night)는 2작품, 크리에이티브(Creative) 1작품으로 총 11작품에서 활용되었으며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표현해야 하는 롱 헤어디자인인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과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는 분리배색(Separation)이 표현되지 않았다.

반복배색(Repetition)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여 반복하여 배치하는 배색으로 일정한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연속적인 조화를 주는 방법이다. 반복배색(Repetition)은 강한 인상을 부여해야 하는 패션컷(Fashion Cut)종목에서만 4작품에 활용되었다.

강조배색(Accent)은 단조로운 배색에 대해 대조적인 색으로 강조되는 색상 또는 톤으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의 상태를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강한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강조배색(Accent)은 총 12작품에서 나타났으며 강렬한 이미지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강조해야하는 종목인 패션

컷(Fashion Cut)에서 5작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이미지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생활예술 분야에서 조형성뿐만 아니라 색채를 통해 예술적 감성을 느끼며 심리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색채는 심리적, 생리적인 에너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으로 조형성과 함께 예술적 감성을 원하며 매년 트렌드와 변화를 추구한다. 헤어디자인과 트렌드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고 개발해야한다. 본 연구는 헤어디자인에서의 색채배색과 컬러는 매우 중요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O.M.C 헤어월드 대회에 나타난 작품의 년도별, 종목별 작품에서 사용된 색채를 분석하여 대회의 헤어 작품 디자인의 배색에 활용된 색채배색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류한 색상으로는 가발의 기본색인 흰색(White)는 분석색상에서 제외하였고, 먼셀 표색계의 기본 색상인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 색과 무채색을 분류하기 위해 GY(Gray Scale)의 11가지 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색채 분석 및 배색기법분석, 년도별 사용된 색채 분석결과를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평가를 하고 결과를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월드 작품의 년도별 색상분석의 결과로는 2014년 독일 헤어월드에서는 주황(YR)이 1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노랑(Y)이 12회로 주황과 노랑의 그라데이션이 표현된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초록(G)와 청록(BG)의 녹색계통의 색상을 사용되지 않았다. 2016년 한국 O.M.C 헤어월드 대회에서는 2014년도와는 달리 빨강(R)이 1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주황(YR)과 노랑(Y)이 각 8회, 연두(GY)와 초록(G)이 각 2회 사용되었다. 2017년 파리 O.M.C 헤어월드 대회에서는 2016년 한국 헤어월드와 같이 빨강(R)이 1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노랑(Y)이 13회, 세 번째로는 무채색(Gray Scale)이 사용되었다. 이전까지는 검정, 회색의 단독 사용이었다면 2017년도에서는 무채색의 사용으로 검정에서 회색으로의 그라데이션이 나타났다. 2018년 파리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에서 표현된 색상은 자주(RP)의 사용이 12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주(RP)의 사용도 짙은 자주, 옅은 자주 등으로 톤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강(R)이 9회, 주황(YR), 노랑(Y)이 각 8회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2014년, 2016년도는 파랑과, 녹색계통 한색의 컬러가 다소 적게 활용되었고 가시성이 뛰어난 난색 계열을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도부터 한 가지 컬러를 톤을 조절하여 그라데이션 및 다채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컬러로 작품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둘째, 종목별 활용된 색채 분석의 결과로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에서는 빨강(R)이 13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주황(YR) 9

회, 노랑(Y) 6회, 자주(RP)가 7회로 난색이 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에서는 빨강(R)이 총 17회로 빨강으로 채도와 톤의 변화를 주어 나타내는 컬러가 많이 나타났고, 연두(GY), 초록(G), 청록(BG)의 한색계열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주황(YR)의 사용이 14회로 늘어났으며 빨강(R)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낮았다.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에서는 자주(RP)의 사용이 10회로 주를 이루었고 자주컬러의 채도, 명도, 톤에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노랑(Y)의 7회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며 청록(BG)와 남색(PB)의 짙은 색은 사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패션컷(Fashion Cut)에서는 무채색(Gray Scale)이 17회 사용되었고 그 중 검정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마네킹의 기본 모발의 색인 흰색과 대비효과를 주기 위해 무채색의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빨강(R), 주황(YR), 노랑(Y)의 색이 각 8회씩으로 강조색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종목에서는 난색계열이 파스텔톤으로 활용되어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고 형태와 균형, 하이라이트의 표현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종목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에서는 강렬한 명시성을 줄 수 있는 빨강(R)의 색이 주가 되어 활용되었다.

셋째, 작품별 사용된 색채의 배색 기법의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 중 톤온 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배색

이 나타난 작품은 총 35작품이 있었다.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이 16작품으로 가장 많았고 패션컷(Fashion Cut)은 1작품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컬러와 우아한 형태디자인을 표현해야 하는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과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 톤온톤&톤인톤(Tone on Tone&Tone in Tone)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이 나타난 작품은 총 38작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배색이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 나타난 작품이 각 11작품 씩 총 33작품이 나타났고,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에서는 3작품, 패션컷(Fashion Cut)은 2작품이 나타났다. 분리배색(Separation)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 종목은 패션컷(Fashion Cut)로 8작품이 나타났다.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는 2작품, 크리에이티브(Creative)는 1작품으로 총 11작품에서 활용되었으며 이브닝 스타일(Evening Style)과 데이 스타일(Day Style)에서는 분리배색(Separation)이 표현되지 않았다. 반복배색(Repetition)은 패션컷(Fashion Cut)에서만 4작품에 활용되었다. 강조배색(Accent)은 총 12작품에서 나타났으며 강한 이미지가 보이는 패션컷(Fashion Cut)에서 5작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O.M.C 헤어월드 대회 작품 분석한 결과 각 대회 작품의 년도별 사용된 색상의 비율과 종목별로 선호하여 사용된 색채, 그리고 이 색들을 구성하는 배색 기법 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의 미용 대회에서는 주황(YR), 노랑(Y) 계열의 색을 사

용하여 여성종목이 특징을 난색을 활용하여 표현하려 했다면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여성머리=난색, 남성머리=한색, 무채색의 틀에서 벗어나 각 디자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무채색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방법의 컬러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종목별로 색상분석의 결과 각 종목에서 중요시하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컬러가 사용되었는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종목에서는 난색계열이 파스텔 톤으로 활용되어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고 형태와 균형, 하이라이트의 표현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종목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에서는 강렬한 명시성을 줄 수 있는 빨강(R)의 색이 주가 되어 활용되었다.

작품별 색채의 배색기법으로는 앞의 사용된 색채의 특성과 유사하게 각 종목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컬러를 선정해 사용하였다. 각 작품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형태, 라인, 균형 등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과 부분에 맞게 배색기법의 특징을 활용하여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대회 종목을 분석할 때 다루었던 테크니컬 부문의 크리에이티브(Creative), 헤어바이나이트(Hair by nigh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종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색채만을 활용한 배색분석 뿐 아니라 여러 특징을 가진 대회종목과 색채배색을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종목이 요구하는 특징을 색채의 다양한 배색기법을 활용하여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O.M.C 헤어월드에서 나타난 여

성 종목만을 분석하여 연구하였으나 다른 국제 대회들과 비교하여 각 대회들 마다 나타난 색채 트렌드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색채배색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창의적

인 디자인컬러배색 개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서 미용대회나 작품디자인컬러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나 실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박진현.(2013). 웰라 트렌드에 표현된 헤어스타일의 여성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4(4), pp.77-93.
- 2) 이효람.(2018).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이미지 유형 분석 - 2013 S/S~2018 S/S 파리 프레타포르테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3), pp.35-46.
- 3) 황수민, 김진숙, 손진아.(2018). 웰라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디자인 트렌드 분석연구 -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4), pp.187-199.
- 4) 이숙자.(2016). 헤어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색상 트렌드에 관한 연구 - 2003~2013년까지 대회출품작을 대상으로. *한국미용학회지*, 22(4), pp.800-810.
- 5) 이숙자.(2014). 헤어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의 구성요소 변화.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6) 김신아.(2017). O.M.C헤어월드 작품분석 및 색의 형태를 응용한 테크니컬·패션종목 디자인연구.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7) 박하늘.(2015). 크리에이티브와 헤어바이나이트의 이미지 분석에 따른 헤어디자인 개발.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 8) 윤선애.(2018). 색채 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현대 패션 색채와 배색 특성 규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9) 이숙자.(2016). op. cit., pp.800-810.
- 10) 김신아.(2017). op. cit., p.1.
- 11) 황금빛누리.(2018). 노란색 배색의 감성척도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 12) 윤선애.(2018). op. cit., p.1.
- 13) 김신아, 권기형.(2016). O·M·C 헤어월드 여성 크리에이티브·헤어바이나이트 작품분석 및 작품 제작 - 2010 2016수상작품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2), pp.113-122.
- 14) 황수민.(2020). 색채분석을 통한 미용대회 헤어작품의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9-50.
- 15) 남하진.(2014). 실내코디네이션에 표현된 도시호텔의 브랜드 개성에 관한 연구 - 호텔신라와 콘래드서울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16) HQ. Li.(2019). 보색대비를 응용한 스포티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17) 이유지.(2016). 내적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의 회화적 승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 18) 최선애.(2001). 색지 활용을 통한 배색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19) 홍기희.(2012). 유아의 선호색조와 유아용 그림책 색조와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20) 황금빛누리.(2018). op. cit., p.21.
- 21) 허지혜, 강성혜.(2014). 활옷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색채와 배색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8(3), pp.143-153.
- 22) 오승아.(2012). 지문의 반복형상에 의한 텍스타일 표현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